

# 07

## 현실세계와 가능세계 [신유형]

1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이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 ②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 ③ 평행추세 가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 ④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문항 번호	오답률	정답	선택지별 비율				
			①	②	③	④	⑤
14	88.1	1	11.9	23.3	23.9	30.9	10

선지 구성비율을 보면, 정답인 1번보다 다른 선지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아예 문제에서 출제된 논리개념을 아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현실세계)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가능세계)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
-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

원래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현실세계의 결과와 가능세계의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하지만 가능세계를 실제 현실에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에서의 실험군의 결과와 비교군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선지 1번에서는 사건의 효과를 구하는 방식을 ‘현실세계의 결과와 가능세계의 결과를 비교하는 일’ 대신 ‘사건의 전후’, 즉 ‘시간의 전후 개념’으로 바꿨다. 19수능 지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선지에서 구현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오답의 논리를 만드는 근본 논리로 ‘현실세계-가능세계’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신유형이라 말할 수 있다.



1문단에서 실험적 방법에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1문단에서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지만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므로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평행추세 가정을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특정 사건만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④ 3문단에서 스노는 이중차분법을 1854년에 처음 사용했다고 하였으며,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하였다고 하였다. 스노가 이중차분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사건 전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였다.